

# 나래코리아 '봄, 당신을 위한 발라드'

제70회 연주회 29일 서울 인스클래식 아트홀서 개최

29일 저녁 7시 서울시 서초동 인스클래식 아트홀에서 지난 20년간 클래식 연주회를 개최해 온 나래코리아의 70회 연주회가 열린다.

이번 연주회는 이수정 작家的 사회로 국내 정상급 피아니스트 강소연과 김인하 첼리스트의 연주로 봄날의 하루를 뜻깊게 보내고자 기획되었다.

이날 연주회에서 피아니스트 강소연은 리처드 클라이더만의 Ballade pour Adeline, Fly to the Moon, 프란츠 리스트의 Liebesraum No.3를 솔로로 연주할 예정이며, 첼리스트 김인하와는 이 선희의 3에게, 프란시스 풀랑의 Les Chemins de L'Amour(사랑의 길)를 함께 연주할 예정이다.

피아니스트 강소연은 예원예고와 이화여대 그리고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를 첼리스트 김인하는 예원예고와 서울대 그리고 독일 뒤셀도르프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전문연주자와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나래코리아는 지난 20년 동안 서울, 전주, 장수를 비롯해 일본 규슈 사카이, 후쿠오카, 오사카, 가나가와 에비나, 그리고 도쿄 시부야에

서 많은 국내 정상 연주자 김민지, 김수연, 김순영, 김희정, 강혜정, 하나린, 송남영, 안필라강, 신승아 등 소프라노와 테너 이재욱, 류정필, 바리톤 김진주, 우우호, 석상근 그리고 대중가수로는 김범룡, 이상우, 추가열과 피아니스트 김미영 신정혜, 강소연, 백미선, 이정은, 그리고 색소폰 홍순달과 왕주철 오케스트라 지휘자 등 많은 연주자들이 20년간 빛내주었다.

또한, 사회를 본 배우 박철민, 바리디아 교수, 고선운 교수, 송미령 교수, 방송인 설수진과 많은 아나운서를 비롯해 박민숙 명창, 해금 이동훈 교수, 이아현 연주자와 소리를 비롯한 많은 국악인, 특별 게스트 소프라노 이진희 한국슬로푸드 부회장, 색소폰 김석준 교수도 참여했다.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나래코리아 김생기 대표는 지난 20년이 끈질기게 지난 세월이었다고 회고하며, 그동안 함께해온 모든 분들과 특히, 하진석 콘텐츠로드 대표, 이인호 전북벤처협회 회장, 김종섭 윌간 리뷰 대표, 정



제70회 나래코리아 연주회 포스터

애련 작곡가와 함께 해 온 '화양연화'의 시절이었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전국한지공예대전 수상작 발표

지정민씨 '겹과 겹' 대상

제30회 전국한지공예대전에서 지정민씨의 '겹과 겹'이 대상에 뽑혔다. 20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 따르면 전주시와 공동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통, 현대, 문화상품 등 3개 부문에 걸쳐 모두 155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조현동 심사위원장을 비롯한 한지공예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객관적이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수상작으로는 △대상 지정민(전주, 53세) △최우수상 전학식(군산, 73세), 조은희(서울, 50세) △우수상 권효선(전주, 26세), 김미경(영인, 55세), 박진아(광주, 53세) 등이 다.

대상을 수상한 지정민씨 작품은 시간의 층들이 겹겹이 쌓인 흔적을 조형화한 '겹과 겹' 작품을 출품. 전통을 기반으로 한 종이, 커팅기법, 코일링기법 등을 활용한 창의적인 기법과 현대적 표현 및 조형성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유라 운영위원장은 "올해로 30돌을 맞은 전국한지공예대전은 학생들부터 전문작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한지공예 작품이 출품됐다"며 "전통 한지와 응용한지를 이용한 개성 있고 수준 높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대상 지정민 '겹과 겹'

조현동 심사위원장은 "이번 전국한지공예대전에는 전통분야 및 개성 있고 새롭게 시도된 현대적 작품이 많이 출품돼 한지공예가 공예문화의 발전 및 확산에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대회를 통해 유구한 한지문화의 역사와 전통이 계속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27일 오후 2시 한국전통문화전당 2층 공연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5월 24일부터 6월 9일까지 전당 3층 기획전시실에서 만나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제한지산업대전TF팀(063-281-1574~5)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전주문화재단, '송천다북 음악회'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오는 25일 오후 6시 전주 송천동 세병공원 야외무대에서 '송천다북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주문화재단과 사회적기업인 국민종합주택관리가 함께하는 음악회에는 체리필터, 이인규 블루스밴드, 소리신앙앙블 등이 출연한다.

'난민고양이', '우리 날다' 등 수많은 명곡을 탄생시키며 인기밴드로 자리매김한 체리필터는 밝고 가벼운 팝 스타일의 모던락에서부터 거칠고 파워풀한 하드코어와 메탈까지, 대중성과 작품성을 아우르는 다양한 음악으로 일반적인 가요 팬뿐만 아니라 록 팬들에게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한국 블루스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인규블루스밴드는 2019년 전북 레드콘 음악창작소를 통해 데뷔, 2023년 JUMF 출연과 더불어 현재 한국 블루스 소사이어티 내 국가대표 자격으로 국제블루스 첼린지에 매년 진출하는 유망 아티스트다.

싱그러운 초여름을 노래하는 소리신앙앙블은 우아한 하모니와 풍부한 감성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송천다북 음악회'는 지역의 사회적기업인 국민종합주택관리의 소중한 예술후원을 통해 이뤄졌다"며 "세병공원의 넓은 잔디밭에서 펼쳐지는 음악회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음악회는 전석 무료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재단 미래전략팀(063-211-9276)으로 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 음악극 '엄마의 카세트 테이프' 출발

전주문화재단, 팔복예술공장 야외 물입형 첫 공연 마쳐... 9회 공연 남아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지난 18일 팔복예술공장 옥상에서 음악극 '엄마의 카세트 테이프' 첫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20일 재단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 작품은 2021년부터 3년에 걸쳐 지역민들의 구술자료들과 최정 작가의 시나리오가 만나 공연화 됐다. 1980년대 몇 안 되는 수출 역군이었던 선전지는 여성 근로자 400명이 넘는 대규모 카세트테이프 공장이었으며, 지금의 팔복예술공장이 품고 있는 전주의 근현대사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작품은 팔복예술공장의 이야기를 팔복예술공장에서 무대화 하는 공연이라는 점에서 액자식 무대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팔복예술공장 내 유휴공간이던 옥상 공간 한가운데를 관객석으로 배치, 4면을 무대로 활용함으로써 관객이 장면에 따라 몸을 움직여 공연을 관람하는 몰입형 공연으로 제작됐다.

이에 관객들은 1989년 선전지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는 상황극으로 들어가 배우들과 함께 20살의 선희, 정애, 후남이 되어 함께 노래하고 웃고 우는가 하면, "근로환경을 개선하라", "부당하고 철화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분노하기도 했다.

배우들을 따라 극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팔복예술공장 곳곳에 남아있는 과거의



흔적들을 찾아보는 재미도 이 공연을 즐기는 관객 포인트다. 공연 종료 후에는 팔복예술공장을 돌아보며 선전지의 흔적을 찾아보는 스탬프 투어에 참여, 한정판 굿즈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엄마의 카세트테이프'는 역사가 조명하는 위인이나 영웅은 아니지만, 지금의 전주를 있게 한 우리 주변의 작은 영웅들을 마주하는 이야기다. 가족, 친구, 동료, 특히 부모님과 함께 손잡고 함께 보면 좋을 만한 전주의 공연이다.

첫 공연을 마친 '엄마의 카세트테이프'는 앞으로 총 9회의 공연을 남겨두고 있다. 상반기에는 5월 25일부터 6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하반기는 9월 7일부터 2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오후 2시에 운영된다.

공연 예매는 전주티켓박스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사전 예매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 전북 관광자원 교육 여행 인지도·이해도 높여

전북자치도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 수도권 역사 교사 초청 역사문화탐방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는 역사문화탐방 캠프투어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20일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에 따르면 역사문화탐방은 전북 관광자원 교육 여행에 인지도와 이해도를 높이고, 추후 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에 전국의 역사 교사 중 역사교사실천연구회 소속 회원인 수도권 중등교사 58명을 초청해 18~19일 이틀간 진행했다.

탐방 코스는 교육여행지 코스로 많이 찾는 군산 근대문화역사거리와 익산 세계문화유산 등이다.

1일 차 일정은 역사문화탐방지도사의 해설과 함께 학생의 눈높이에서 일제 강점기에 대해 느낄 수 있는 코스를 방문했다. 근대역사와 현장이 남아있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신흥동 일민식 가옥 거리'를 시작으로 근대 건축물의 향기를 그대로 간직한 '향광관'과 '동국사'를 돌아봤다.

2일 차에는 천년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익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방문했다. '미



특사지 석탑'을 시작으로 백제 무왕의 숨결이 느껴지는 '왕궁리유적'과 '백제왕궁박물관'을 방문하며 탐방을 마무리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역사문화 탐방을 통해 전북 지역의 올바른 역사 문화 확산과 교육 여행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관광협회 등과 적극 협력해 전북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관광마케팅종합지원센터(063-232-0226)에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차였다.



선화당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내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



## 전주매일 캠페인